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mailto:sa3119@nate.com)



강 론



## 주님처럼 먹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평화를 빕니다.

봄이 되면 처마 밑으로 제비가 날아옵니다. 그전 본당에서도 몇 년 만에 제비가 와서 교육관 입구에 집을 지었습니다. 새끼가 부화하자 부모는 열심히 먹이를 나릅니다. 처음엔 새끼가 안 보였는데 나중에는 커서 먹이를 달라고 부리를 힘껏 벌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제비집 밑에는 그놈들이 싸놓은 변이 넘쳐나지만 누구도 제비집을 치우자고 하진 않습니다. 새끼들 먹이느라 설새 없는 부모는 과연 제대로 먹기는 할까, 왜 저렇게 열심히 먹일까, 종족보존의 본능 때문일까, 아니면 자식에 대한 정이 있는 걸까? 이런저런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먹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지난 달 구미에서는 20대의 젊은 아빠와 두 살배기 아기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먹을 게 없어서였다고 합니다. 국민소득 3만 불이라고 떠들어대지만 정작 우리 주변에는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무상급식은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청소년이

---

눈치 보지 않고 밥을 먹을 권리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도 밥을 굶는 아이들이 있고, 급식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는 세력이 있으니 씁쓸할 따름입니다.

전에는 먹느냐 먹이지 않느냐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무얼 먹느냐가 큰 문제입니다. 무얼 먹느냐에 따라 건강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과거와 달리 우리 주변엔 안전하지 않은 음식이 넘쳐납니다.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유전자 조작식품,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 농약 범벅인 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중금속 성분인 미세먼지는 우리가 마시는 공기뿐 아니라 우리가 먹을 동식물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오염되고 우리 건강도 나빠져서 정신과 마음마저 허약해지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좋은 것을 먹고자 하는 마음, 자식이 나를 닮아가는 데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같을 것입니다. 먹을 게 없다면 자기 살도 줄 수 있는 게 부모입니다. 그 마음은 하느님 사랑의 일부입니다. 하느님 역시 우리가 당신이 마련해주신 음식을 잘 먹고, 당신을 닮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하느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습니다. 세상의 음식은 생명을 잠시 연장시켜줄 뿐입니다. 그럼에도 썩어 없어질 양식을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처럼 하늘의 생명을 살 수 있도록 당신 몸을 내어 주십니다. 그런데 성체성사는 미사에 참례해서 성체를 모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루카 22,19)

미사는 왜 주님이 당신 몸을 내어주시고,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가난하거나 소외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하느님 식탁에서 배 불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살았던 것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며, 또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배가 부른 이들은 옆을 돌아볼 줄 모릅니다. 하느님의 축복도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배고플 때 하느님을 찾다가 금방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식탁에서 나만 배불리진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성체성사의 의미를 늘 기억하며 모든 이가 이 풍성한 잔치에 참례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우리 자신을 좀 더 내어주어야 하겠습니다.

금성 카리타스 손성문 사도 요한 신부



## 전례

### 입당 전 안내

교형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체와 성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줌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신 주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며 정성되이 이 전례에 참여합시다.

**입당성가** : 178번 ‘성체 앞에’

### 본기도

† 주님, 이 놀라운 성찬의 성사로 주님의 수난을 기념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성체 성혈의 거룩한 신비를 공경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 제1독서 : 탈출기 24장 3절-8절

**안 내** :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 백성으로 삼으시고 피로써 축성해 주십니다.

**묵 상** : 제단에 뿌려진 피와 백성에게 뿌려진 피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는 표징이 됩니다.

**화 답 송** : ◎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 제2독서 : 히브리서 9장 11절-15절

**안 내** : 그리스도는 교회에 당신의 몸과 피를 남겨주셨습니다.

**묵 상** :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며 온전한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부 속 가** : 성체송가(매일미사 41쪽)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마르코 14장 12절-16절.22절-26절

**강 론** : ‘주님처럼 먹히는 신앙인이 되어야’(1-2쪽)

---

예물준비성가 : 211번 '주여 나의 몸과 맘'

영성체성가 : 164번 '떡과 술의 형상에'

**영성체 후 묵상**

인간의 아픔을 낮게 하시고  
인간의 슬픔을 위로 하시던  
이천년 전의 예수님이  
오늘날 이 곳에 나를 만나러 오십니다.

<침묵>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  
작은 밀떡 속에  
한 모금의 포도주 속에 담겨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은 생기를 찾고  
사랑이신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 되어 갑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200번 '열렬하신 주의 사랑'

**※ 공소사목 성금**

김득순님	10,000원	이무상님	100,000원
------	---------	------	----------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2,480,000원** 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알림

### ■ 평신도 희년을 맞이한 우리의 다짐

- 1.우리는 3초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겠습니다.
- 2.우리는 정해진 같은 시간에 전 교구민이 함께 기도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 3.우리는 이웃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언어사용을 실천하겠습니다.
- 4.우리는 기본질서 지키기를 실천하겠습니다.
- 5.우리는 본당행사에 지역민과 함께 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 ■ 교구 사제피정

- 일시 : 6월 4일(월) - 6월 8일(금)
- 장소 : 마산 가톨릭교육관

### ■ 여름신앙학교 교사연수

- 일시 : 6월 9일(토) 13:30 - 10일(주일) 15:00
- 장소 : 농은수련원
-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세면도구, 간편한 복장, 미사 준비
- 회비 : 1인 45,000원

### ■ '새로 나는 성경공부' (예언서)

- 일시 및 장소 :  
안동 - 6월 9일, 16일, 23일, 30일, 7월 7일, 14일  
교구청 (토요일 13:30-17:00)  
함창 - 6월 11일, 18일, 25일, 7월 2일, 9일, 16일  
함창 성당 소성당 (월요일 19:30-22:00)
- 강사 : 교구 성서사도직 담당 김 루치아나 수녀
- 회비 : 1인 40,000원(교재비 포함)

### ■ 2018년 열린 성경 강좌 4

- 일시 : 6월 11일(월) 19:30 - 21:3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참가비 : 1인 3,000원
- 강사 : 함원식 신부(영덕 본당 주임)

### ■ 6월 예비신학생 모임

- 일시 : 6월 17일(주일) 12:00
- 장소 : 교구청

### ■ 제61차 청소년 성서모임

- 주제 : "너에게 맡기셨다"(사도 27,24)
- 일시 : 7월 27일(금)13:30-29일(주일)15:00
- 장소 : 문경 성보촌 유스호스텔
- 대상 : 중1 ~ 고2, 선착순 110명
- 참가비 : 1인 80,000원
- 준비물 : 성경, 주일 미사 준비, 간편한 옷, 물놀이 옷, 운동화, 필기도구

### ■ 교구장 사목방문 일정 안내

- 6월 10일(연중 제10주일) : 영양 본당 (견진성사)
- 6월 17일(연중 제11주일) : 풍양 본당

### ■ 꾸르실료 윌레미사

- 일시 : 6월 18일(월) 20:00
- 장소 : 송현동 성당

### ■ 안동교구 50주년 기념 천주교 역사 유물 기증 운동

- 목적 : 천주교 안동교구 역사박물관 설립
- 내용 : 본당 및 개인이 소장한 서적, 성물 (십자가,목주 등), 사진, 오래된 유물
- 기간 : 2018년 수시로
- ※기증시에는 교구장 명의의 기증증서 전달
- 문의 : 안동교구 50년사 편찬위 간사  
박효진 유리아나 010-8560-1654  
사무처 858-3111~3

### ■ 제2회 안동가톨릭미술가회전

- 일시 : 6월 12일(화) ~ 17일(주일)
- 장소 :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갤러리5
- 오픈행사 : 6월 12일(화) 18:00

### ■ 2018년 안동 49차 선택주말

- <제49차 안동 선택 주말>이 다음과 같이 연기되었습니다.
- 일시 : 8월 17일(금)19:00 - 19일(주일)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 문의 및 신청 :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054-858-3114~5)  
남자대표 김경호 나자로(010-4159-9778)  
여자대표 김영희 마리스텔라(010-5185-7867)

---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 제7장

#### 자녀 교육의 강화

##### 성교육의 필요성

282. 건전한 정숙함을 보호하는 성교육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으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를 옛 시대의 유물이라고 여깁니다. 정숙함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보호하고 우리 자신이 이용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어입니다. 정숙함이 없으면, 사랑과 성은 성행위에 대한 집착과 더불어 우리의 사랑의 능력을 왜곡하는 병적인 상태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이를 비인간적으로 대하거나 다른 이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283. 성교육은 흔히 ‘안전한 성관계’를 통한 ‘자기 보호’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성관계로 생길 수도 있는 아이를 마치 자신이 막아야 하는 적으로 여겨야 한다는 듯이, 성관계의 자연스러운 목적인 출산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은 수용이 아니라 자기에적 공격성을 촉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청소년들이 성숙, 가치, 상호 헌신, 혼인에 맞갖은 목표를 이미 지니거나 한 듯이, 그들의 몸과 욕망을 함부로 다루도록 권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이는 결국 청소년들이 자신의 부족함이나 커다란 한계를 보상하려고 다른 사람을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도록 그들을 분별없이 부추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양한 사랑의 표현, 상호 배려, 존중이 넘치는 온유함, 풍부한 의미가 있는 의사소통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만인 앞에서 서약을 하고 나서 자신의 몸을 내주는 형태로 표현되는 온전하고 관대한 자기 증여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혼인에서 성적 결합은 모든 약속의 표징으로 나타날 것이며, 앞서 걸어왔던 길은 이 결합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284. 젊은이들이 다음과 같은 차원을 혼동하여 착각하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성적 매력은 잠시 동안이나마 결합의 허상을 만들어 내지만, 사랑이 없다면 이러한 ‘결합’은 그들을 원래 서로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만큼이나 낯선 이들로 남겨둡니다.” 참된 자기 증여를 위해서 육체의 언어는 욕망을 파악하고 다스리는 인내심 있는

---

훈련을 요구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주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혼란스러워하는지를 이해하는 것과 그들이 보여 주는 미숙한 사랑의 방식을 지속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누가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말해 줍니까? 누가 젊은이들을 진지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더 크고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진지하게 준비하도록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성교육이 너무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285. 또한 성교육에는 남녀가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을 극복하고 상대방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경험할 수 있는 이해할 만한 어려움을 넘어서서, 젊은이들이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피조물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 여러분의 몸의 여성성과 남성성을 받아들이는 것도 이성을 만나면서 자신을 인식하는 데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창조주 하느님의 작품인, 나와는 다른 남자와 여자라는 특별한 선물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서로를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것과 자기에게 빠져 있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교육은 젊은이들이 자기의 몸을 받아들여 “성적 차이를 다루는 법을 더 이상 알지 못한다는 핑계로 성적 차이를 없애려” 하지 말도록 도와야 합니다.

286.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존재 방식은 단지 생물학적 또는 유전자적 요소들의 결과가 아니라 성격, 가족력, 문화, 과거의 체험, 받은 교육, 친구와 가족과 존경하는 이의 영향, 적응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다른 구체적인 상황들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을 하느님의 창조 활동과 떼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남성성과 여성성은 우리의 모든 결정이나 체험에 앞서 존재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무시할 수 없는 생물학적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실 남성성과 여성성을 엄밀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의 남자다운 존재 방식이 아내가 직업을 가진 상황에서도 융통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가사 노동을 떠맡거나 자녀 양육을 함께한다고 해서 덜 남성적이 되는 것이 아니며 실패, 굴종, 치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다운 모습의 존엄을 격하시키지 않는 이러한 건전한 ‘역할 변화’를 자녀들이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고정관념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과장시켜 혼인의 현실 상황에서 구현되는 상호 증여를 청소년들이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한 고정관념은 개인의 능력 개발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이나 춤이 덜 남성적인 것이라고 여기거나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덜 여성적이라고 여기도록 하는 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관념이 변화되었지만, 어떠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부적절한 특정 개념이 정당한 자유를 제한하고, 자녀의 구체적인 정체성과 잠재력의 참된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 다음에 계속 -



## 동백꽃

정규석 프란치스코  
(안동가톨릭문인회)

동백꽃은 낮선 꽃이었다. 주변에서 본 적이 없었다. 기억속의 첫 동백꽃은 김유정의 소설에서다. 소설속의 동백은 한창피어 흐드러진 노란 꽃이다. 알싸하고 향긋한 냄새가 난다. 처음으로 동백나무를 본 곳은 선운사였다. 동백꽃은 붉었고 향기도 없었다.

동백꽃을 보러 거제도를 다녀왔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따라 나선 길이었다. 이름난 군락지에서 제대로 동백꽃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동백꽃은 쉽게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목적지인 지심도행 배는 풍랑주의보가 길을 막았다.

동백을 만난 곳은 공곶이 가는 길에서였다. 동백나무는 회색빛이 도는 갈색으로 매끈하기가 벗나무 같았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촘촘한 가지와 광택이 나는 진녹색의 무성한 잎들이었다. 모진 바다 바람을 견디기 위한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졌다. 그에 비해 정작 동백꽃은 녹색의 잎에 묻혀 미미해 보였다. 마치 배색이 잘못된 수채화를 보는 것 같았다. 더 붉게 보였으면 좋으련만 그저 그런 검붉은 동백꽃이 거기 있었다.

아쉬운 마음으로 고갯길을 오르는데 길가에 떨어진 동백꽃이 눈에 띄었다. 새색시 마냥 수줍은 자태로 나를 향해 웃고 있었다. 혼자만의 동백꽃은 달라보였다. 선명한 붉은 색상은 흰 수술대에 셋노란 꽃 밥과 잘 어울렸다. 잎과 함께였을 때는 전혀 돋보이지 않던 동백이었는데 홀로 있으니 아름다웠다. 어찌 보면 장미를 닮은 것 같기도 했다. 들여다볼수록 묘하게 매력적인 꽃이었다. 동백이 이런 꽃이구나 싶었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다. 첫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시선을 끌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겉모습을 보면 지극히 평범해 보인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보면 반듯하고 지적이며 예의바른 사람임을 알게 된다. 처음에는 별로인 것 같아도 알면 알수록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자주 만나고 싶은 사람,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된다. 동백꽃이 그랬다. 단번에 눈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들여다볼수록 정이 가는 꽃이다. 찬찬히 보면 더 아름다운 꽃이다. 꽃말처럼 겸손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꽃은 꽃다워야 한다. 아름답거나, 화사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특이하게 생겼거나, 향기라도 진해야 꽃이다. 동백꽃을 알기 전까지의 내 단순한 생각이었다. 이제는 첫눈에 쏙 들어오는 꽃이면 좋겠지만 볼수록 매력적인 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성격이 도도하면 다치고, 고결한 사람은 모욕당하기 쉽다. 힘차고 거침없는 행보는 은연중 적을 만든다. 고상하고 깨끗한 마음은 알아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 울곤으면서 겸손한 사람이 존경을 받는다. 꽃도 마찬가지다. 화려한 벚꽃은 봄바람에 날려 도로위에서 짓밟힌다. 순백으로 고귀한 기품을 드러내는 목련이지만 땅에 떨어져 검게 변한다. 벚꽃은 눈처럼 쏟아져 내리고 목련은 맥없이 똑똑 떨어진다. 동백꽃은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진다. 그 형체 그대로 땅에 떨어져 쉽사리 시들지 않는다. 지조 있는 선비의 모습이다. 동백이 사랑스러운 또 다른 이유다.

나도 동백꽃 같은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붉은 꽃 곱게 피우는 동백처럼 세파에 시달려도 웃으며 살았으면 한다. 사람들에게 가려 존재감이 없어도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한다. 알수록 미더운 사람, 따뜻한 인간미를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동백꽃처럼 겸손한 사람이면 좋겠다.

자주 봐야 정이 들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한다. 내년에도 동백꽃을 보러 남행길을 달려갈 것이다. 지심도의 동백이 보고 싶다.